

익산시 고향사랑 열기 뜨거워

고향사랑기부 4억 돌파... 시민과 함께 안정적 정착 유도 · 기부금 활용 방안도 모색

익산시에 대한 고향사랑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며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개월 만에 참여자 2천800여명을 돌파하는 등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기부 열기가 뜨거운 데는 전국 각지에 있는 향우회원들의 애환심과 지역 기관·단체의 뜨거운 릴레이 기부 운동이 밑거름이 됐다. 또한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답례품 품목 다양화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점도 한몫했다.

시는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끄는 한편 기부금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기준 시에 기부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약 2천800건으로 4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첫 달 300여명에 이르던 기부자 숫자는 2월 580여명, 3~4월은 2천여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2개월 동안 지역 22개 기관에서 약 4천5백만원의 성금이 모이기도 했다.

기부액은 10만대가 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기부지역은 도내가 42.13%, 서울이 14.45%, 자매도시 경주와 지속적 있는 경북지역이 13.5%로 뒤를 이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와 쌀 등이 50% 가까이 선택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시는 더 많은 기부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답례품 분야와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다.

우선 시는 지난해 말 도농복합도시 명성에 걸맞게 탐마루 쌀과 삼기능형 고구마 등 지역의 대표 특산품이 포함 12개 답례품목을 선정했다. 이후 지역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재 답례품목은 57개까지 늘어난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익산농협의 '뱅크랩쌀'이 입점했으며 콤팩트와 꽃차, 서동마 등 다양한 가공식품과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제품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 도시인만큼 국보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유적을 형상화한 작품들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품목을 선보인 결과 매일 2천만원 이상의 답례품이 소비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목히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까지 1석2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기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들과 상호 협력하며 참여를 유도해 왔다.

지난해부터 농협 익산시지부, 애향본부 등 각종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돋워왔다. 또한 인근 지자체인 전주, 자매도시 경주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동참하기로 협약하며 상호기부 활동에 협력해왔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봄 조성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북 뛰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읍면동 다양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홍보 활동도 활발히 이어왔다.

시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유명인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프로골퍼 박영준 씨는 홍보대사 가운데 제일 먼저 기부금을 내며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으며 뒤이어 인기 트로트 가수인 김용민 씨도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에서 지난 12일부터 열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대회에 승리하며 기뻐하는 모습이다.

“풍요로운 경험과 추억 되었길”

익산시, 전북 아·태 선수단 최고의 지원... 성공적 마무리

익산시에서 지난 12일부터 열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의 대회들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익산에서는 육상 배드민턴, 야구, 철인3종, 볼링, 축구 등 총 6개 종목에 개최된 4,000여명의 아시아·태평양 최고의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시는 대회기간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하며 참가자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경기 출전 외에도 지역 문화 체험, 전통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익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요식·숙박의 위생 점검, 운수 업계 바가지 요금 근절 깨끗한 도시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선수단에게 좋은

지역이 남는 익산을 만들었다.

한편 12일부터 20일까지 경기기간 동안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통역봉사자는 대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종합 상황실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한 셔틀버스 안내, 경기 운영 지원, 관광지 안내 등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현을 시장은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스포츠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참가 선수들에게 풍요로운 경험과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제5회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진행

제5회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가 지난 20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월명공원 수변로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숲속 걷기대회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가정의 달을 즐기는 행사다. 코스는 청소년수련관 야외주차장에서 출발해 월명공원 수변로 3km 구간을 돌아오는 구간으로 진행됐다.

가족과 함께 △하늘거울 만들기, △유아 신체놀이, △편백나무 방향제 만들기 체험행사 코스 사이 진행됐다.

완주 후에는 완주를 기념하는 완주증과 메달이 수여되고 △누에 키우기, △쌍이영 만들기, △공기데코 만들기, △나비 에어로켓, △특수분장 체험 및 슬러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방울토마토 농가 위기탈출 소비 촉진 나서

익산시가 방울토마토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시는 익산탐마루주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23일 익산시청 공직자 및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방울토마토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시청 주차장 8시부터 11시까지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토마토 소비촉진 홍보와 함께 시중보다 싼값으로 현장 판매에 나선다. 또 사전 구매예약자들의 토마토를 현장 배부가 이뤄진다.

또한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몰인 '익산몰'을 통해 22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한시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방울토마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최근 특정 품종(HS2106)의 방울토마토에서 발생한 식중독 유사증세로 소비가 위축돼 방울토마토의 판로가 막히고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원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이웃이 모여 소통 · 협업... 평생학습공동체 실현

군산시 지역 특화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22일 개강

군산시에 찾아가는 지역 평생교육의 바람이 거세진다.

시는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평생학습에 의한 배움을 토대로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를 22일부터 개강한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는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 간 학습 기회가 적

은 농촌, 산업단지 등 중심으로 7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강한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는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주민 10인 이상이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소독장상 · 환경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마을자원 · 문화유산 · 역사 · 관광 자원 등과 연계되는 학습을 할 수 있

도록 역량강화, 주제학습을 위해 교육 인력과 학습 예산을 지원하는 군산시민의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이다.

이번에 개강하는 행복학습센터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7개 지역 특화 교육과정이 군산 각 지역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산업단지인 오식도동의 다문화가족과 지역민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어르신들 돕기 위한 '현역화장품 만들기', 농촌지역인 대야면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중심되어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경로당 모스 벽화 그리기'가 운영된다.

원도심인 월명동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추억 사진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들과 관광객 대상의 '지역 자원과 연계된 월명 골목 사진 전시회', 경력단절여성들이 한지와 업사이클링을 연계해 군산시 관광상품 개발, 판매와 체험교육으로 환경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한지와 업사이클링'으로 만드는 군산 관광상품 만들기를 운영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가축재해보험' ... 축산농가 경영 '큰 힘'

익산시가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이 지역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에 361농가가 가입 이 중 80%인 313농가가 질병 폐사, 화재, 폭염 등으로 15억원 가량 지원을 받았다.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위기가 높아져 안전환경 조성환경 구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3억 8000만원으로 지역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구제역 시 등 법정 전염병은 살처분 보상을 하며 가축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대상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고 축사의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당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 80~95%, 사슴·양 60~95%, 돼지 80~95%, 가금류 60~95%, 꿀벌·토끼·오소리 95%, 축사화재는 90~100%를 보장한다.

보험가입은 예산 범위내 신청 농가 순 지원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농협, KB 한화 등 6개 손해보험사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